

전동차 등 실태조사 구례군민 안전 지킨다

구례군이 노인전동차, 4륜 오토바이 등 교통수단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순호 군수는 지난 27일 실·과장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례군 노인전동차, 4륜 오토바이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하고 야간운전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군민을 위한 군정활동 추진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김 군수는 야간운전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노인전동차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또한 화염음악제 등 관내 행사 지원, 고향의 보금자리 지원 사업 적극 홍보, 추석 이후 코로나19

방역관리 대책 추진·백신 접종률 제고 등 현안 업무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구례군은 8월 말 기준 인구 2만5천161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8천900명(35%)에 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간편한 이동수단을 원하

는 군민들을 중심으로 전동차, 4륜오토바이 등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야간운전을 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게 증가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구례군은 차량 운행이 많지 않은 야간의 경우 도로로 나오는 전동차를 보지 못하고

김순호 군수, 실과장 정책토론회서 안전 강조
사고 감소 안전한 구례만들기 적극 이행 지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차원에서 안전장치 보급 등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구례군은 읍·면을 대상으로 전동차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경광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장치를 통해 사고 위험성을 대폭 낮춘다는 복안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 안전을 위해 빠짐없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동차 등의 운전 위험성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강구해야 한다”며 “전동차 등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군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양시, 정량평가 추진상황 보고회

광양시는 지난 27일 김경호 부시장 주재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정량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보고회는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표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실적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25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80개 정량 지표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하고 현재까지 달성하지 못한 지표의 문제점과 부진 원인을 분석해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광양시 제공>

올해 광양시민의 상에 서현필씨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엔 박성협·김영일씨 선정

올해 광양시민의 상 수상자로 서현필씨가 선정됐다. 광양시는 28일 “최근 시청 상황실에서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시민의 상 1명, 자랑스러운 광양인상 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광양시의 명예를 드높인 공이 현저하거나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되는 주민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으며 추천 부문은 ▲교육과학 ▲체육진흥 ▲사회복지·환경 ▲지역개발 ▲문화홍보 ▲공공복리 ▲산업경제 등 7개 부문이다.

15명으로 교육과학 부문 2명, 체육진흥 부문 4명, 사회복지 부문 5명, 지역개발 부문과 문화홍보 부문 각 1명, 산업경제 부문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은 바 있다. 서현필씨는 2001년부터 20여년을 농촌지도자로 활동해오면서 농촌지도자회 조직 육성과 자매도시(경기 파주시)와의 농산물 판매 교류, 읍·면·동 농촌지도자 역량 강화, 전문기술을 활용한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 보육재단 후원, 수해복구 활동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모범이 되는 출향인사에 수여하는 상으로 지난해 처음 시행됐다. 추천 분야는 ▲문화·관광·체육 ▲교육·과학 ▲산업·경제 ▲사회복지·환경 ▲공공복리 ▲기타 등 6개 분야로 올해 수상자는 산업·경제 분야 박성협(67·기업인)씨와 기타 분야 김영일(62·행정사)씨가 선정됐다. 박성협씨는 ㈜세양물류 대표이사로서 시와 10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해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광양=양홍렬기자

여수화학단지에 있는 석유화학제품을 광양항을 통해 수·출입해 연간 6천T EU의 물동량을 유지했다. 국내 최초 ISO 탱크 컨테이너 위험물 운송 허가 획득으로 한국 물류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했다. 김영일씨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광양시민들의 오래된 집단 갈등 민원을 해결했으며 잦은 사망사고 도로 구간(용강-덕례)에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증צה해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한국갈등조정진흥원 이사장, 행정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8일 제27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민의 상과 자랑스러운 광양인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광양=양홍렬기자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률 99%·사용률 70%

광양시 분석…하나로마트·음식점·슈퍼마켓 사용 많아

광양시는 28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한 2차 긴급재난생활비가 지난 23일 기준 지급률 99%를 기록하며 370억원이 시중에 풀렸으며 이 중 258억원(70%)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사용액 258억원의 업종별 사용 현황을 보면 하나로마트 17.1%, 식당 등 일반음식점 16.4%, 슈퍼마켓 13.9%, 주유소 7.5%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정육점, 농축수산물점, 편의점, 의류·신발 등 잡화점,

병·의원, 약국, 학원 등)가 45.1%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 사용액이 207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10일 만에 51억원이 추가 사용돼 추석 명절 동안 긴급재난생활비가 유용하게 쓰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양시는 당초 지난 17일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을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장기 출타자 등 시민 요청을 수렴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기한과 동일하게 29일까지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광양=양홍렬기자



구례 반달곰씨름단, 매화급·무궁화급 우승

추석장사씨름대회 양운서·김다영 선수 정상 등극

구례를 대표하는 최강 여자씨름단 ‘반달곰씨름단’이 최근 충남 태안군에서 열린 2021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체급전 매화급·무궁화급 우승을 차지했다. 최근 이틀간 열린 추석장사씨름대회에 출전한 구례군청 반달곰씨름단은 체급전 매화급·무궁화급 우승을 차지하면서 여자씨름 두 체급 최강자 자리에 올랐다. **〈사진〉** 매화급에서는 구례군청 소속 선수끼리 맞붙은 결과, 양운서 선수가 이연우 선수를 2대1로 이기며 우승했다. 양운서 선수는 2년 연속 추석장사씨름대회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무궁화급 김다영 선수는 4강전에서

금산군씨름협회 정지원 선수를 안다리로 넘겨 첫 경기를 가볍게 이기면서 앞서나갔다. 두 번째 판은 정규시간 1분과 연장 30초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계속했고 그 결과 김다영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갔다. 결승전에서는 장사에 등극했던 강력 한 우승 후보 거제시청 이다현 선수를 첫 경기부터 승기를 잡아 2대1로 이기며 생애 첫 장사에 등극하는 쾌거를 거뒀다. 반달곰씨름단은 단체전에서는 안산 시청에 1대3으로 패해 준우승에 그쳤지만 매화급·무궁화급 두 체급을 휩쓸며 다시 한번 명실상부 최강임을 입증했다. /구례=이성구기자

‘구례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내달 1일부터 30억 규모…소진시 2% 할인 전환

구례군은 28일 “10월 1일부터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와 소비 촉진으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구례

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할인 판매는 30

억원 규모다. 소진 시에는 2% 일반 할인 판매로 전환된다. 구례사랑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구례 봉성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13개 지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상품권은 NH농협은행 구례군지부, 구례농협, 산동농협, 구례축협

등 금융기관 11개 지점과 모바일 앱 CHAK을 통해 카드 발급과 상품권 충전을 할 수 있다. 1인당 월 구매한도는 100만원(지류형 50만원, 카드형 50만원)으로 한정된다. 구매한 상품권은 구례군 가맹점(지류 916개소, 카드 759개소)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구례=이성구기자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문인협회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

광주매일신문과 광주광역시 문인협회가 공동으로 문학마당 작품집, 『광주抒情』을 발간했습니다. 이 작품집은 지난 4년여 동안 광주매일신문에 연재됐던 광주문인협회 소속 회원들의 시와 수필을 엄선한 것입니다. 작가들에게는 탐과 열정과 사색의 결과물인 작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발표의 장을 제공했고, 독자들은 아름다운 시와 사연이 깃든 수필을 대하면서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선물 받았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울한 시기에 우리의 삶을 관통하는 한 편의 시와 수필은 큰 위안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발행처 광주매일신문 ·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연락처 062-650-2078
값 18,000원